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15호

발행인 : 김정태
발행일 : 2016년 3월 14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지부 임시대대에서 투쟁방침 확정

3월 7일 한온시스템대전지회 대강당에서 지부 임시대대가 열렸다. 120명의 대의원 중 75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지부 투쟁방침을 논의했다. 정부의 노동개악 행정지침이 이미 발표되었고, 총선 이후 노동법 개악이 다시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지부 대의원들은 임단투를 지부 중심으로 투쟁을 만들고, 그 힘을 바탕으로 노동개악을 저지하자고 결의했다. 무엇보다 하나되는 지부 투쟁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힘을 다시 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반해고, 취업규칙 개악 '지부 투쟁'으로 저지한다

임시대대에서 확정된 투쟁방침과 임단투 요구안을 보면 노동개악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 지침으로 발표된 일반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막기 위한 내용이 중요한 요구안으로 제안됐다. 작년, 정부의 노동법 개악은 저지했지만 정부의 불법적인 행정지침이 일방적으로 발표되었

다.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왔듯이 많은 조합원들이 사측의 단협 개악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의원들은 이를 막기 위한 요구안을 확정했다.

그 외 임금 기본급 152,050원 인상, 노동자 건강권을 위한 산재 불승인시 요양 및 휴업급여 지급, 지부 총회 시간 확보, 교섭위원 전임 유급 보장, 간부 교육시간 보장 등을 요구안으로 확정했다.

투쟁은 지부 중심으로!

대의원들은 올해 투쟁은 지부 중심으로 하나되어 진행한다고 결의를 모았다. 사업장 임단협만으로 노동개악을 막을 수 없다는데 공감했고, 지부와 금속노조,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하나되는 투쟁을 만들자고 결의했다.

이제 2016년 투쟁이 시작되었다. 2015년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으로 노동개악을 지연시켰다. 이제 올해 투쟁으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투쟁은 계속된다.

신탄진에 신규지회(미르텍코리아지회) 설립!

대전 신탄진에 미르텍코리아지회가 신규 설립되었다. 방위산업 분야, 항공 관련 부품, 산업기계 제작/설치를 하는 미르텍코리아는 2006년 설립 이후 꾸준히 성장해왔다. 그러나 노동자들에게는 근로기준법 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친인척을 고용하고 경영을 엉망으로 해왔다.

미르텍코리아 노동자들은 참다 못해 노동조합을 설립하기로 마음을 모았다. 그동안 꾸준히 지부와 준비모임을 해왔고, 3월 12일 설립 총회를 열어 지회 규칙을 마련하고 임원 선출을 마쳤다. 그리고 드디어 3월 14일 현장에서 설립 보고대회를 열어 노동조합의 시작을 알렸다.

미르텍코리아 전체 직원은 20여명이고 조합원은 8명으로 시작했다. 규모가 작지만 똘똘 뭉쳐서 큰 힘을 내고 있다. 지역의 많은 동지들이 더 많이 관심을 쏟고 지회가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

유성기업 정신질환 산재 불승인 기자회견

일시 : 2016.03.14(월) 11시
장소 : 서울 근로복지공단 앞

하이텍 본사 결의대회

일시 : 2016.03.17(목) 15시
장소 : 충북 오창 하이텍본사